

봉수산

주변의 민속

저자 김정현

2004

 호시문화원

봉수산

주변의 민속

저자 김정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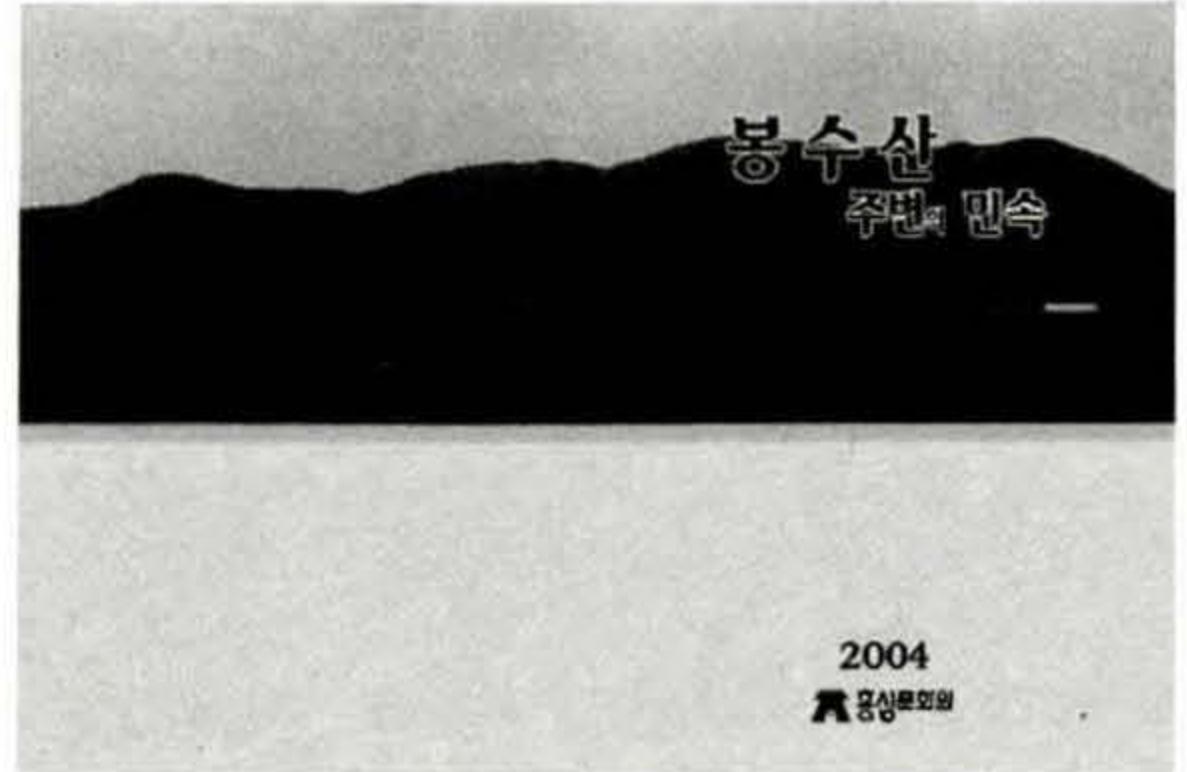
 홍성문화원
홍성

Contents

* 화보

제1장 개관

1. 지명의 유래 /13
2. 봉수산의 지리적 배경 /13
3. 봉수산의 역사문화적인 배경 /14



제2장 봉수산과 백제 부흥운동

1. 백제 부흥운동의 시발지 임존성 /17
2. 임존성의 형태 /18
3. 봉수산의 여러 지명들 /22

제3장 봉수산 주변의 민속

1. 전설 /31
 - 1) 금마의 삼기
 - 2) 구룡산
 - 3) 봉수산 처녀바위
 - 4) 묘순이 바위
 - 5) 금마총
2. 동신신앙 /42
 - 1) 장승제
 - 2) 산제
 - 3) 산제
 - 4) 미륵제

제4장 봉수산 주변의 중·효·열

1. '의좋은 형제' 비 /61
2. 한성동 효자비 /64
3. 성효각 /66
4. 모쟁이 샘 /67

제5장 사진으로 본 봉수산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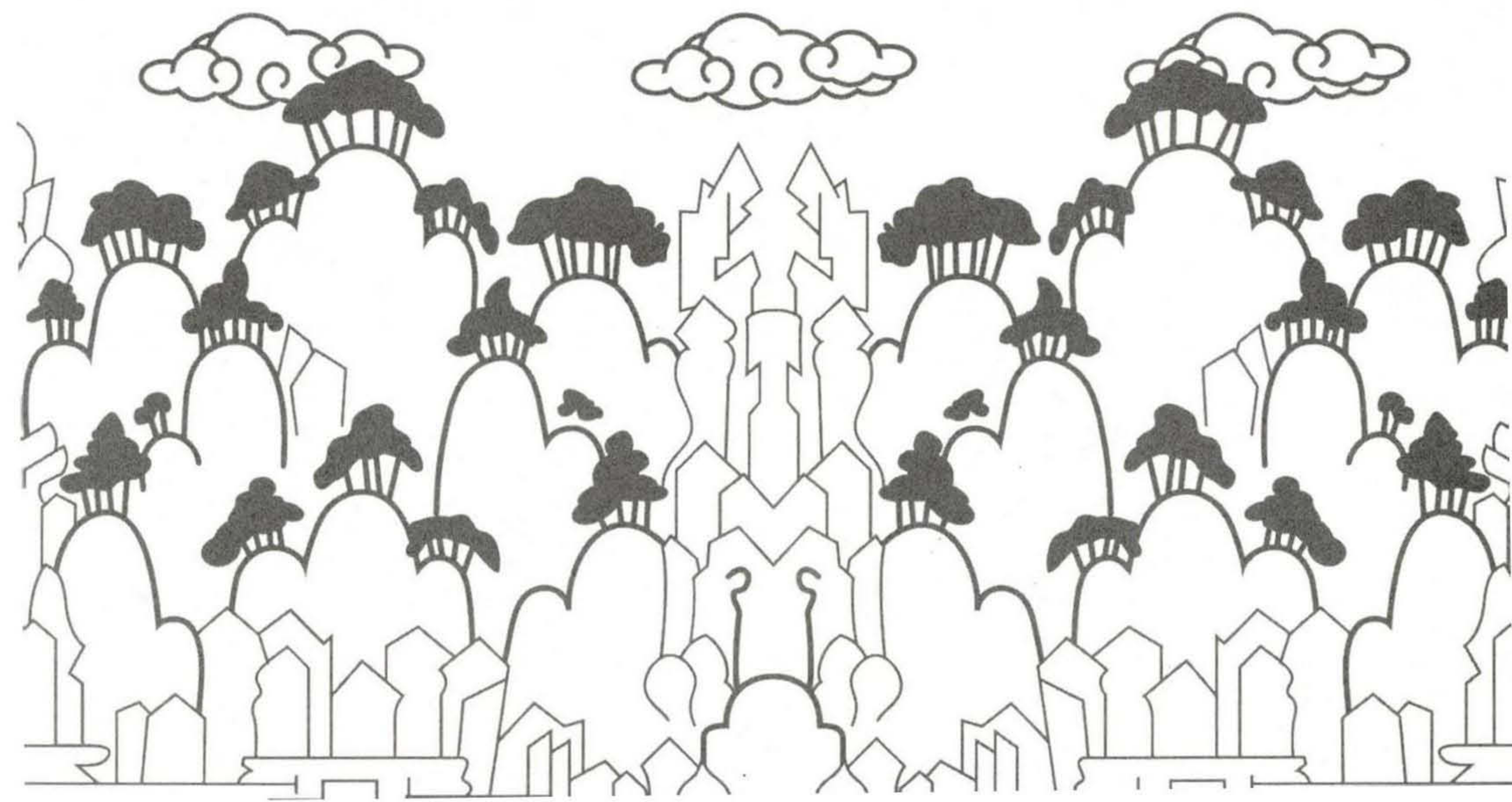
1. 봉수산 정상 모습 /71
2. 봉수산에서 내려다본 주변의 모습 /72
3. 봉수산으로 오르는 임도의 모습 /74

* 참고문헌



획

보







홍성군 금마면에서 바라본 봉수산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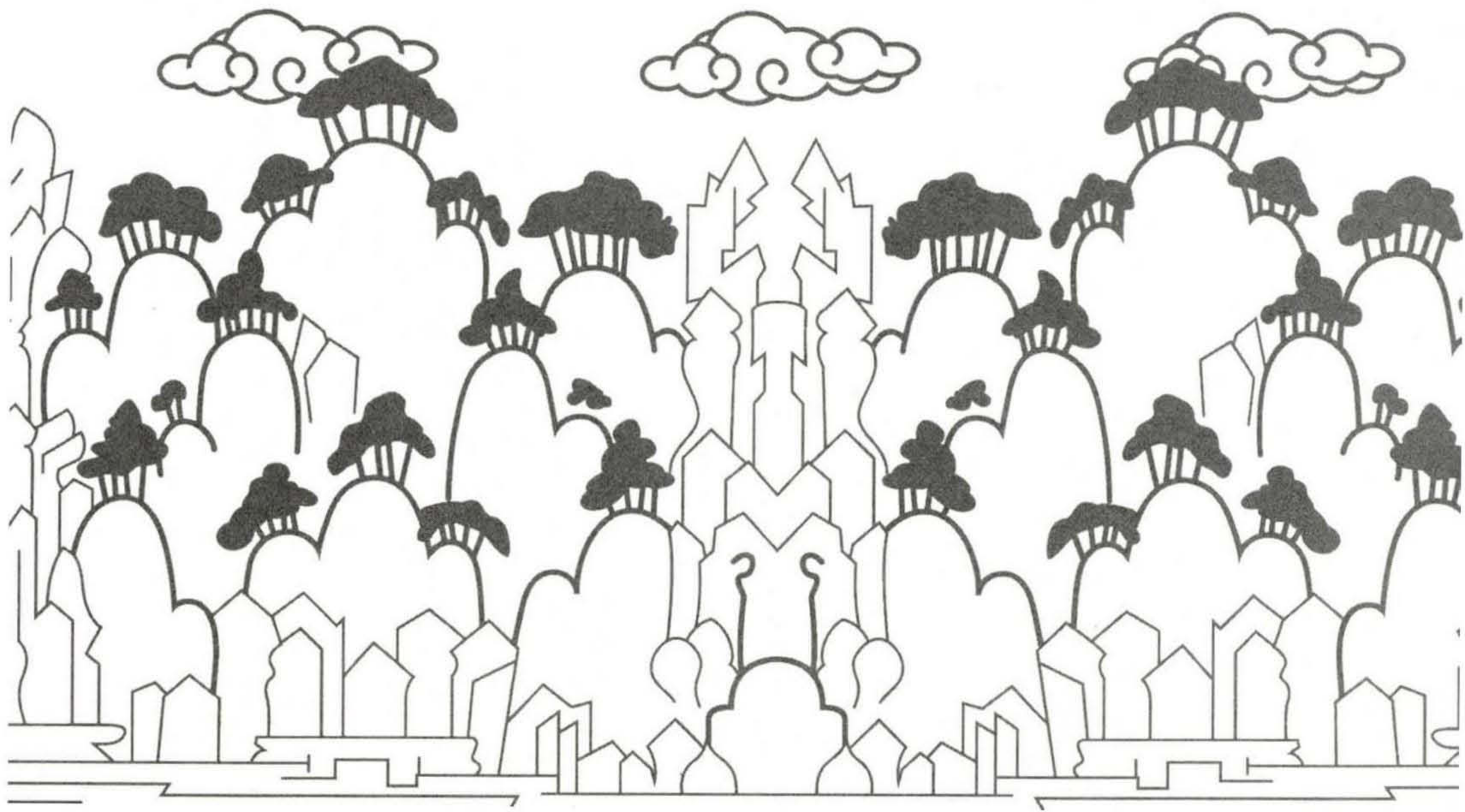


예산군 대흥면에서 바라본 봉수산 전경 ▲



제1장 개

관



제1장. 개관

1. 지명의 유래

봉수산(鳳首山)은 홍성군의 동쪽에 있는 해발 483m 되는 산이다.

봉수산은 산의 모습이 봉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수산의 다른 이름으로는 대흥산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봉수산이다.

봉수산을 대흥산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전설로 재미있게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예산군 대흥 땅에 부임한 원님의 이름이 “봉수”였다고 한다. 원님이 부임하면서 이방에게 고을 뒤편에 있는 봉수산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질문을 받은 이방은 차마 원님의 이름과 똑같은 산의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었다. 잠깐 생각하던 이방은 대흥 땅의 뒷산이므로 대흥산이라고 둘러대었다. 이때부터 봉수산을 대흥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2. 봉수산의 지리적 배경

홍성군의 동쪽으로는 봉수산, 서쪽으로는 백월산, 남쪽으로는 오서산, 북쪽으로는 용봉산이 다른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봉수산은 홍성군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봉수산의 홍성 쪽으로는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와 봉서리가 위치해있고, 예산 쪽으로는 예산군 대흥면과 광시면이 위치해 있다.

봉수산은 홍성에서 오서산(792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정상에 올라가보면 봉수산을 중심으로 하여 확 트인 동서 남북의 넓은 평야와 함께 예당저수지와 멀리 삼교 평야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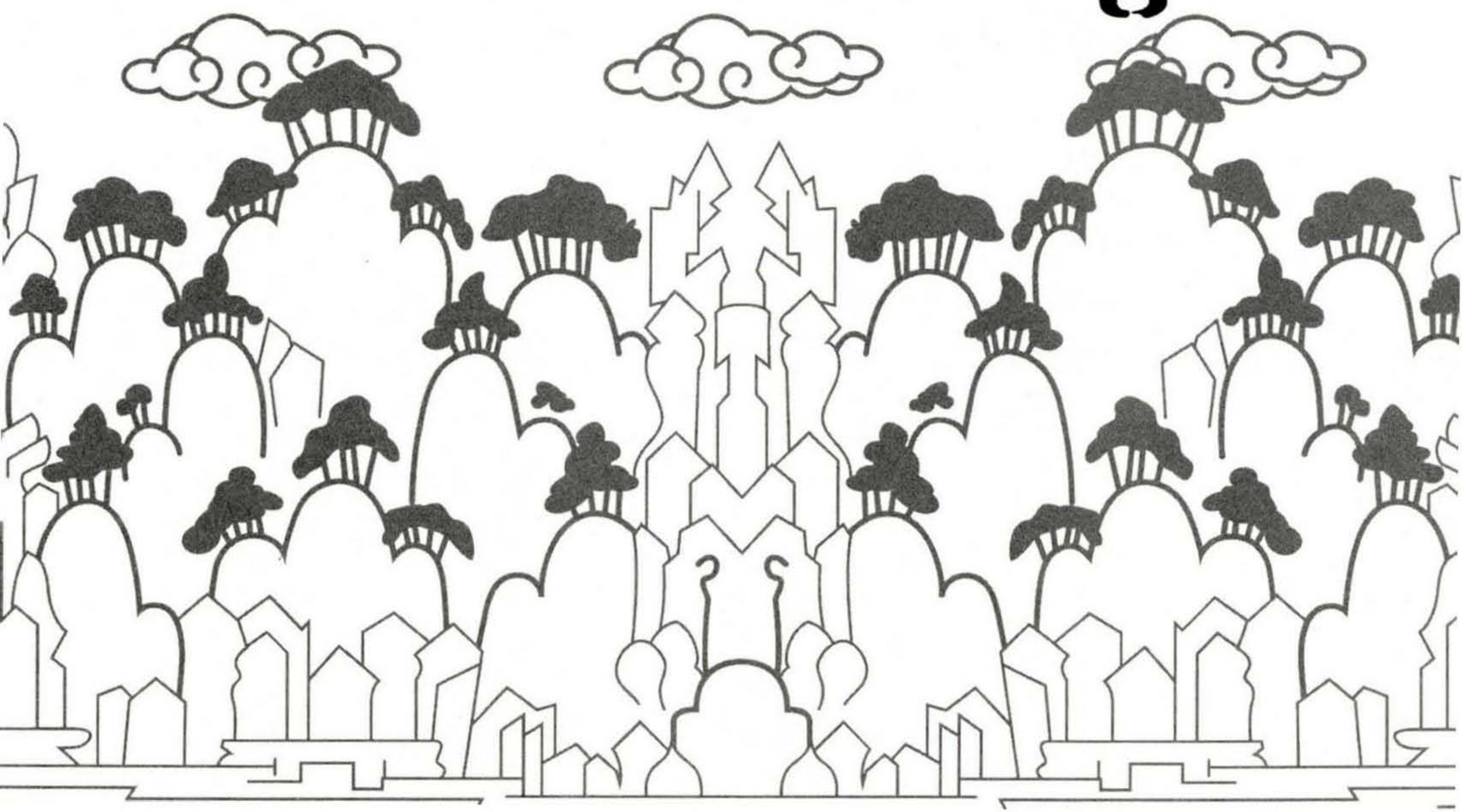
3. 봉수산의 역사·문화적인 배경

봉수산의 정상에 올라가보면 동서남북의 주변지역을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산 정상의 동쪽으로는 예산읍내가 내려다 보이고, 서쪽으로는 홍성읍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으로는 예당저수지와 무한천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봉수산의 정상에는 오래된 산성이 하나 있다. 산성의 이름은 임존성(任存城)이다. 임존성의 성벽 둘레는 2,426m에 이르고 있어서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고대산성 중에서도 최대급에 속하는 산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존성은 특히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주류성과 함께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역할을 한 성으로 더욱 유명하기도 하다.

제2장
봉안수감의 법적
특성
구체이행



제2장. 봉수산과 백제부흥운동

1. 백제부흥운동의 시발지 임존성

서기 660년 7월 18일에 백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찬란했던 백제 역사의 장을 마감하게 된다. 의자왕을 비롯하여 왕족과 많은 수의 백성들은 당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백제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각지에서 백제를 되찾기 위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백제의 장수 흑치상지와, 도침, 복신 등이 백성들을 이끌고 봉수산으로 모여들었다. 바로 임존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임존성으로 들어가 부흥운동의 핵심역할을 하였다.

10여일 만에 임존성에 모인 백제의 유민들은 3만여명에 다달았다.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부흥군의 의욕은 대단했다. 일본에 건너가 있는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불러와 백제의 왕통을 잇게 하고 본격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때는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다시 빼앗을만한 군사력을 갖추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백제부흥군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일본에서 건너온 풍왕자는 663년 6월에 부흥군의 장수 도침을 살해하고 말았다. 아마도 부흥군의 주도권 싸움에서 일어난 내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계기로 부흥군의 막강했던 위세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나·당연합군의 최후공격에 패하고 만다. 이때가 663년 11월경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로써 백제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임존성은 백제부흥운동의 불을 지핀 거점이기도 했지만, 백제부흥운동의 막을 내린 성이기도 하다. 임존성이 마지막으로 함락되면서 3년여의 백제부흥운동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 임존성 전경

2. 임존성의 형태

임존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테뫼식 석축 산성이다. 성벽의 규모와 상태는 부분별로 다르다. 양호하게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인데 남쪽의 성벽은 굴곡이 심하며, 성벽 안쪽으로 도랑이 파져 있다. 성벽의 바깥쪽은 돌로 쌓았으나 안쪽은 돌과 흙을 혼합하여 쌓았다. 성 안에는 3개의 우물이 남아 있다. 성내에서는 백제시대의 토기와 기와조각이 발견되며 계단식 건물 터가 보인다. 남쪽 성벽은 복원작업이 이루어져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풀에 덮여 그 형태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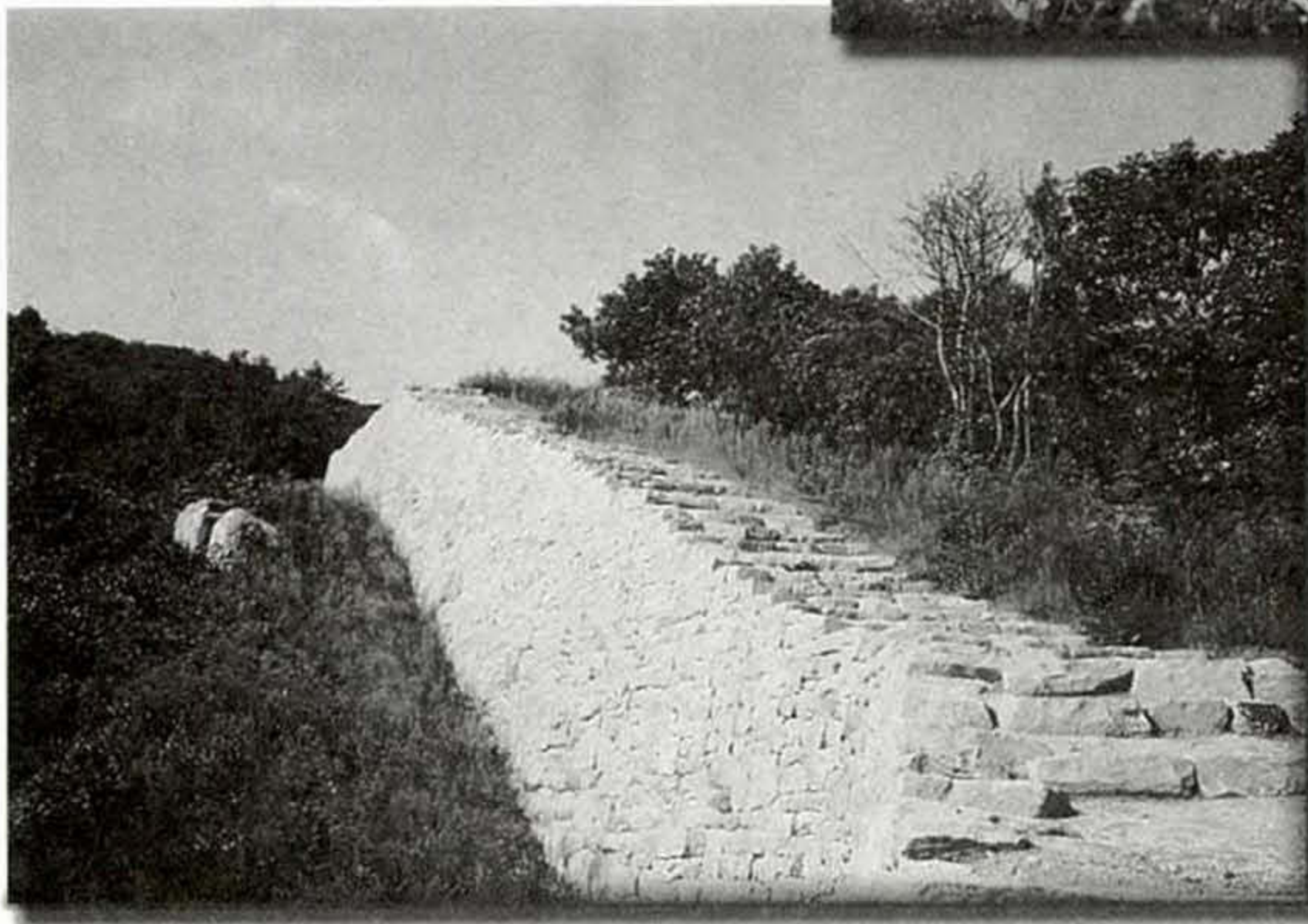
❧ 성벽의 모습 ❧



◀ 동쪽 성벽



동쪽 성벽 ▶



◀ 복원된
남쪽 성벽

❖ 성벽의 모습 ❖



◀ 복원된 남쪽 성벽



▲ 복원된 남쪽 성벽

☞ 성벽의 모습 ☞



남문지 성벽 전경 ▲
남문지 성벽 ▼



▲ 복원을 기다리는 성벽 모습

3. 봉수산의 여러 지명들

봉수산에 올라가보면 여기저기에 많은 유적들과 함께 지명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주요 지명들은 대부분 군사적인 내용들이다.

1) 구경창만리

적군을 감시하는 망루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말달리 편던

말을 훈련시키던 곳이다.

3) 큰새암

임존성에 주재하던 군사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샘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4) 영전비알

옛날에 군인들이 계급순서에 의해 도열해서 사열하던 곳이다.

5) 원수봉

임존성의 남쪽으로 봉우리가 하나 있다. 원수봉에서 바라다 보면 임존성이 훤히 건너다 보인다. 지리적으로 임존성의 중심 부보다 원수봉이 더 높게 보인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임존성을 공략하던 나·당 연합군이 원수봉 쪽으로 침입해왔다고 한다. 그 뒤로 원수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6) 당제봉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봉우리이다.

7) 깃대봉

당제봉 옆에 있는 봉우리이다. 바위에 깃대를 꽂아놓던 곳이다. 바위에 깃대를 꽂은 흔적이 있다.

8) 박쥐굴

굴이 깊고 크다. 박쥐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9) 병목안

주변의 모양이 병목처럼 생겼다.

10) 원절폭포

봉수산 아래에서 임도를 타고 임존성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이 계곡 이름이 원절 개울이다. 아들 바위를 지나서 임도를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 폭포를 만난다. 이 폭포를 원절폭포라고 부른다.

11) 호랑이굴

굴이 깊어서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굴 입구에서 불을 지피면 멀리에서 연기가 난다.

12) 아들 바위

바위 모습이 평평하다. 바위 위에 돌을 던져서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3) 번들 바위

봉수산 서쪽에 있는 월암마을에서 올라다 보면 산 정상부근에 큰 바위가 병풍처럼 절벽을 이루고 있다. 원래 이 바위는 땅속에 묻혀있었고, 바위 위로 배가 나온 것처럼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언젠가 바위를 덮고 있던 언덕배기 흙이 아래쪽으로 무너져내리면서 바위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바위를 번들바위라고 부른다.

14) 할매 바위

할머니가 구부리고 있는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5) 탕관 바위

사람이 탕관을 쓰고 있는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6) 짹 바위

바위가 양쪽으로 짹 갈라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7) 통소 바위

바위가 통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8) 주절 바위

바위가 주절주절 연달아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 턱걸이 바위

철봉처럼 턱걸이를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위가 양쪽 언덕 사이에 걸쳐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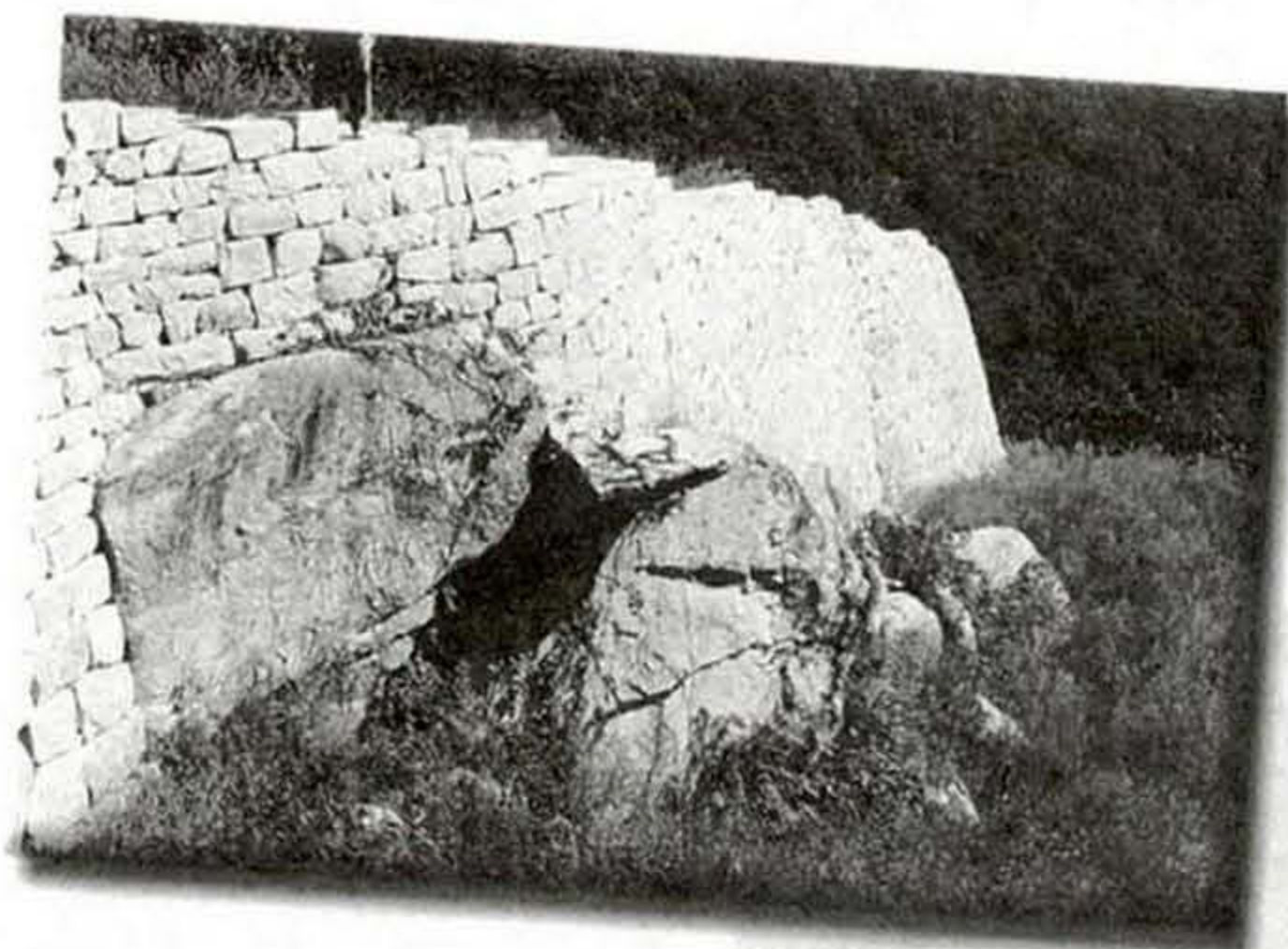
20) 농 바위

바위 위에 장농처럼 생긴 바위가 얹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1) 묘순이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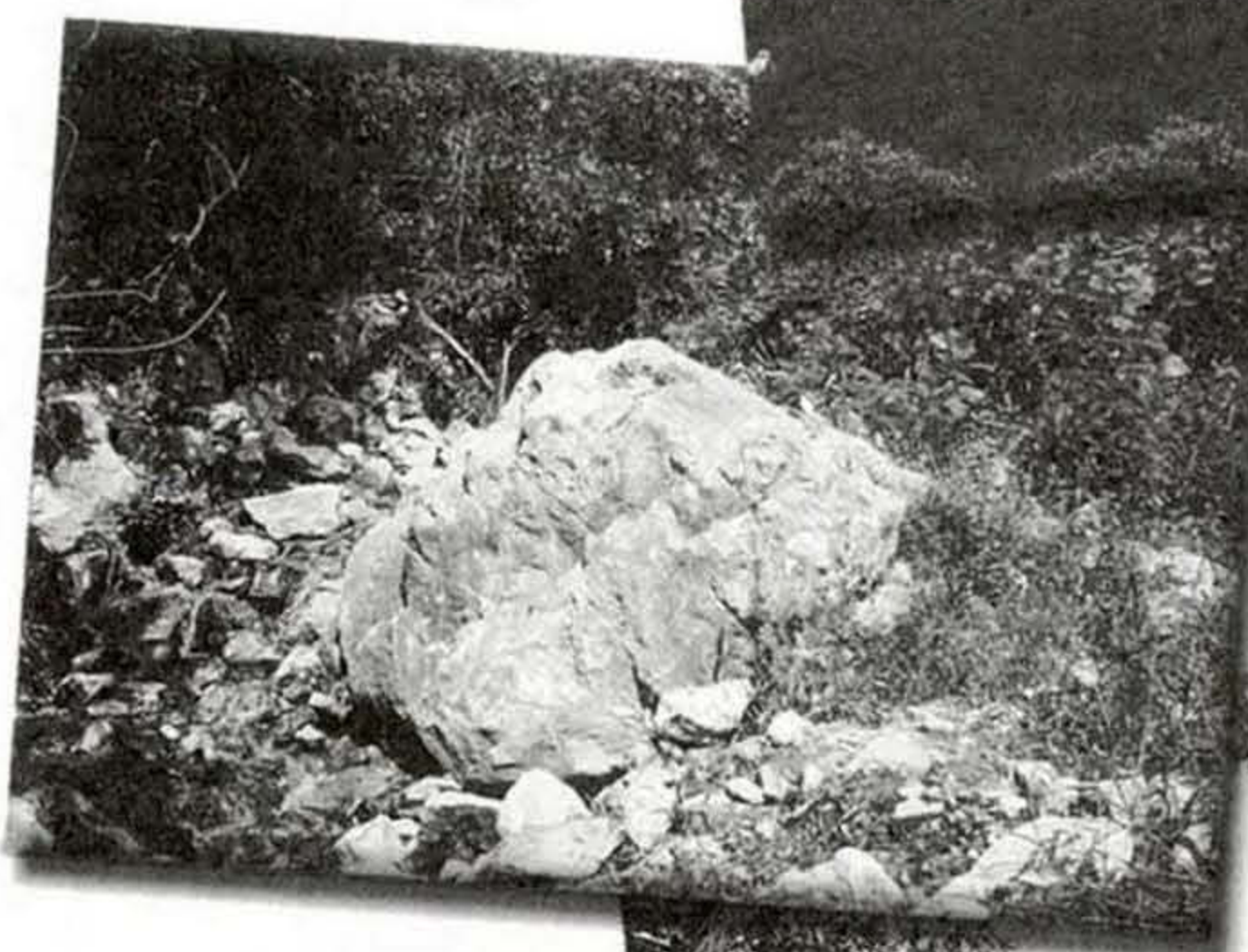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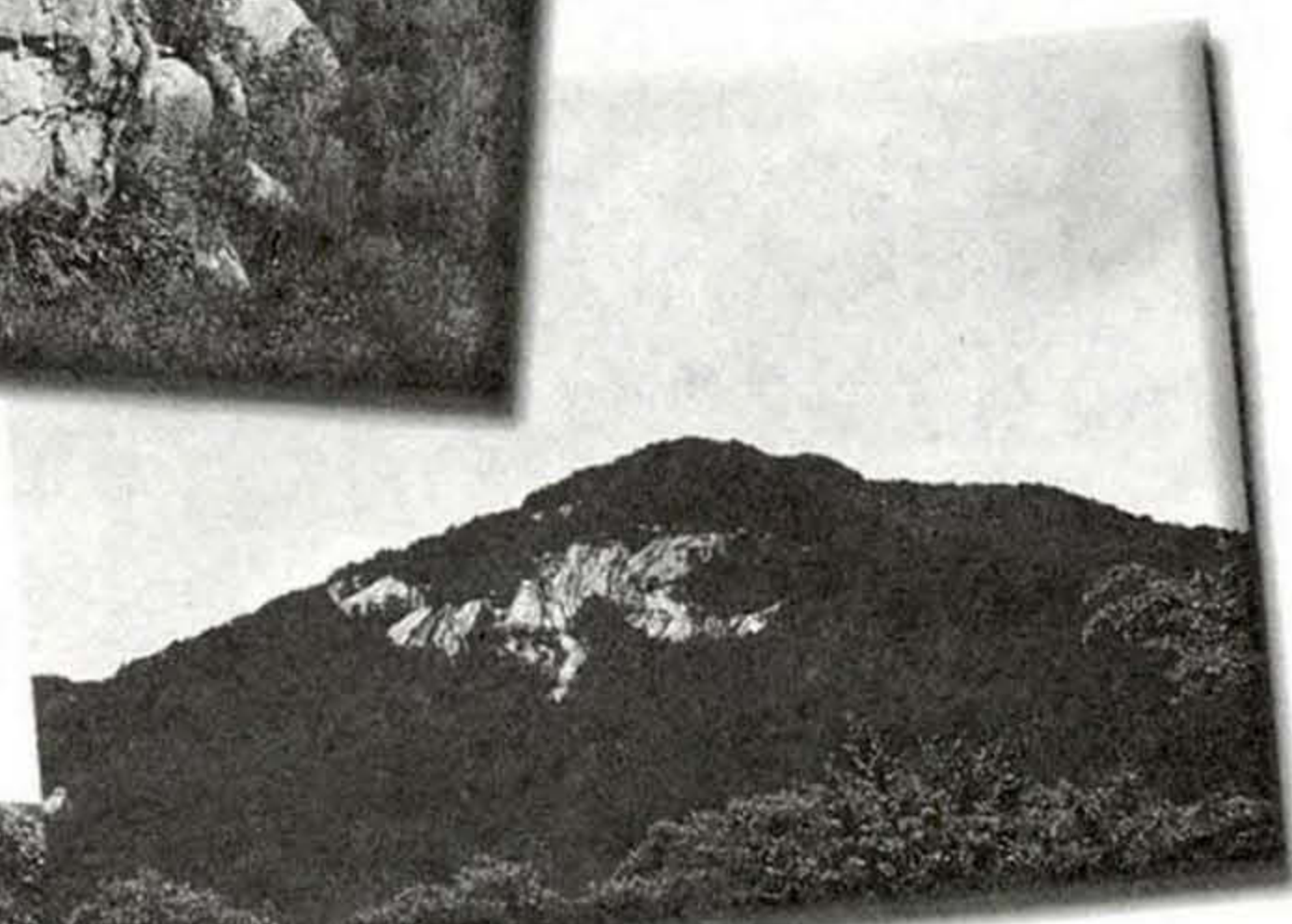
임존성 남문지 성벽에 묘순이 바위가 있다. 임존성 축성과 관련된 묘순이 남매의 전설이 전해지는 바위이다.

❧ 임존성의 여러 지명의 모습들 ❧



◀ 묘순이 바위

번들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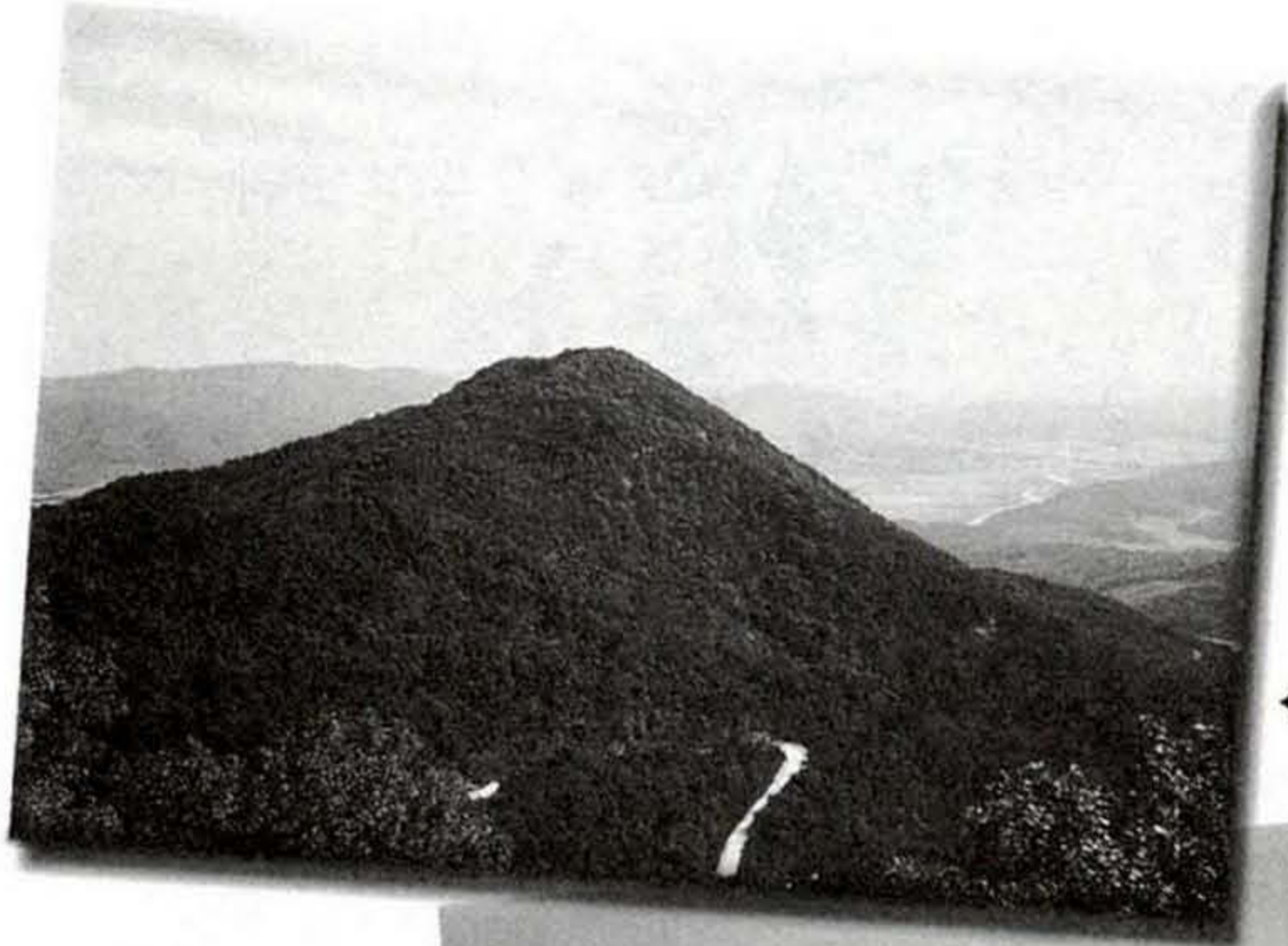


◀ 아들바위

농바위 ▶



❧ 임존성의 여러 지명의 모습들 ❧



◀ 원수봉



깃대봉 ▶



◀ 구경창 만리

✧ 임존성의 여러 지명의 모습들 ✧



◀ 우물지

원 절 폭포 ▲
건물터 ▼

임존성 표석 ▲



제3장 봉안소간 주범의 미수



제3장. 봉수산 주변의 민속

1. 전 설

1) 금마의 삼기

옛날에 홍주목사를 지낸 소세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세양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였다. 조선의 사신을 맞이한 중국사람들은 거만하기가 짝이 없었다. 이에 소세양의 심사가 좀 뒤틀렸던 모양이었다. 소세양이 중국사람들과 우리나라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다. 소세양은 이런 기회에 대국이라고 우쭐대는 중국사람들의 콧대를 살짝 꺾어 놔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홍주땅에 있는 금마라는 곳에 가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많지요. 싹을 베어내도 금방금방 새로 싹이 돋아나는 움송이라는 것이 있고, 일년에 세 번씩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삼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어디 그 뿐인 줄 아시오? 여름에도 녹지 않는 빙교라는 얼음도 있지요. 이것들은 금마의 삼기라고 한답니다. 구경꾼들이 일년 내내 줄을 잇는답니다.”

소세양은 이렇게 거짓말까지 조금씩 섞어가며 자랑을 했다.

“에이, 여보시오. 그런 거짓말이 어디있소?”

중국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핀잔을 주었다. 이에 소세양은 지지 않으려고 더욱 큰소리를 쳤다.

“터무니 없는 말이라니요? 그렇게 못믿겠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면 될 것 아시오?”

소세양이 큰소리를 탕탕 치며 당당하게 나오는 바람에 중국사람들은 움찔 했다. 중국사람들의 움찔하는 모습에 소세양은 더욱 의기가 양양해졌다.

“어디 그뿐인줄 아시오? 연꽃이 삼십리나 뻗어 피는 데도

있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풍혈도 있으며, 바위가 공중에 떠있는 부석도 있소.”

소세양은 거짓말까지 보태서 허풍을 떨었다.

“허, 참. 세상에 신기한 것들도 다 있구료. 언제 조선에 가면 꼭 구경 좀 시켜주시오.”

중국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소세양의 소맷자락을 잡아 끌었다.

“조선에 한 번 오면 꼭 구경시켜 드리리다.”

소세양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로 돌아온 소세양은 얼마 뒤에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여 살고 있었다. 일설에는 홍성군 금마면 도천리에 내려와 살았다고도 한다. 그무렵에 소세양으로부터 금마삼기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중국사람 하나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다. 중국 사신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소세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간청을 했다. 나라에서는 곧 소세양에게 이 뜻을 전했다.

‘흠, 중국 사신이 금마 삼기를 보고 싶어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구나’

소세양은 중국사신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다. 소세양은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다. 중국사신이 금마에 직접 오게 된다면 거짓말이 모두 탄로나게 될 판이었다. 잠깐 생각에 잠긴 소세양은 얼른 말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소세양이 천안쯤에 이르렀을 때, 마침 금마로 내려오던 중국사신과 만나게 되었다.

“허, 참 잘만났소. 지금 금마 삼기를 구경하러 가는 중이오. 나 좀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소?”

중국사신은 소세양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말했다.

“원로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그런데 일이 참 난처하게 되었지 뭐니까? 지금 금마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서울로 피난을 가는 중이지요.”

소세양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사신은 아쉬움이 너무 큰 듯했다.

“허, 그거 참……. 어떻게 빨리 보고 오면 안되겠소?”

“글쎄요. 구경도 좋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꼭 구경하고 싶으면 혼자서라도 다녀오시지요. 나는 지금 피난을 가는 길이니…….”

소세양은 이렇게 말하고 길을 떠나려 했다.

“허허, 금마가 지금 그런 상태라면 난들 갈 수 있겠소?”

중국사신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세양을 따라 말고삐를 서울로 돌렸다. 이렇게하여 소세양은 위기를 모면했다. 금마에 움송과 삼울은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하지만 나머지는 소세양이 중국사람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싶은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었다.

2) 구룡산

봉수산과 초룡산 사이에 구룡산이 있다. 옛부터 구룡산은 풍수지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산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처럼 유명한 산으로 알려지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산소를 많이 썼다. 유명한 지사들에게 부탁하여 명당자리를 찾아 헤매었다.

구룡산의 소문을 들은 일본의 가등청정이 부하를 거느리고 이 곳을 찾았다. 구룡산을 두루 살펴보니 산세가 너무 좋아 앞으로 이 지방에 훌륭한 장수가 날 것이 분명하였다. 가등청정은 구룡산의 혈을 끊도록 명하였다.

한 곳을 끊고 나서 다시 살펴보니, 그 남은 기세가 또 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다시 다른 곳의 혈맥을 끊고 보니 또 남은 기세가 역시 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이렇게 혈을 계속 끊다보니 아홉군데나 끊게 되었다.

지금도 구룡산을 보면 그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난 듯이 보인다. 아홉 군데의 혈맥을 끊었다고 해서 산이름도 구룡산이라고 한다.

3) 봉수산 처녀바위

아주 먼 옛날이었다. 땅거미가 온누리를 어둑어둑 덮을 무렵이었다.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고을 어느 부잣집에 화주승이 찾아왔다.

“똑똑똑…….”

화주승은 시주를 구하기 위해 대문 앞에 서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반집의 하녀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스님은 정중하게 시주를 부탁했다.

하녀는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화주승이 온 것을 알렸다.

“마님, 화주승이 와서 시주를 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해라. 빨리 돌려보내라.”

주인은 딱 잡아 떼었다.

하녀는 주인이 시키는대로 화주승에게 전했다. 그러나 화주승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시주를 부탁했다.

하녀는 다시 들어가서 주인에게 쌀을 조금 주어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주인은 화를 벌컥 내었다.

“뒤뜰에 있는 모래나 한 자루 넣어서 보내거라.”

하녀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주인이 시키는대로 모래를 퍼서 화주승의 자루에 넣어주었다.

화주승은 모르는 척 받아 넣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화주승은 두 세 발짝 걷다말고 잠깐 하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주 묵직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하녀를 향해 말했다.

“내일 저녁 천둥번개가 치거든 봉수산으로 올라오시오. 그러나 아무리 벼락이 치고 무서워도 뒤를 돌아봐선 안돼요.” 하곤 사라졌다.

하녀는 화주승의 말을 듣고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화주승이 그런 말을 했을지 궁금하기

만 했다.

이튿날 한낮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서서히 천둥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녀는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스님의 말대로 밤이 되자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하녀는 스님의 말대로 봉수산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하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봉수산을 향해 뛰어갔다. 하늘에서는 천둥소리가 더욱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천둥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곧바로 번쩍하는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았다.

하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봉수산 중턱쯤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집 부근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함께 큰 벼락이 주인집 부근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마음씨 착한 하녀는 주인집 걱정이 앞섰다. 자신도 모르게 주인집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오리바람이 휩 불면서 천둥번개가 또 다시 내리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하녀가 서있는 그 자리였다. 하녀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후 하녀가 죽은 자리에서 바위가 솟아났다. 봉수산에서 들판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바위인데, “처녀바위”라고도 하고 “계집바위”라고도 한다.

4) 묘순이 바위

봉수산에 임존성과 함께 축성설화로 여겨지는 “묘순이 바위”라는 전설이 있다.

아득한 먼 옛날, 봉수산에는 어머니와 아들, 딸 셋이 살고 있었다.

아들과 딸은 모두가 힘센 장사였다. 누가 힘이 더 센지 구분할 정도로 남매는 힘이 비슷했다.

어느 날, 산 위에서 베를 짜던 어머니는 산신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아들과 딸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명령이었다.

어머니는 여러날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아들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는 남매를 불러 앉혔다.

“너희들은 이 고을에서 남매 장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오늘은 어디 누가 더 장사인지를 가려보는 경기를 해봐야겠다. 만약 이 경기에서 지게 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어머니는 경기 내용을 남매에게 설명했다.

딸인 묘순이는 산 정상에 성을 쌓고, 아들은 굽이 높고 무거운 무쇠 신을 신고 서울에 다녀오는 경기였다.

경기는 시작되었다.

힘이 장사인 묘순이는 쉬지 않고 앞치마로 돌과 흙을 날라 성을 쌓았다.

산 위에서 베를 짜던 어머니는 마음을 졸이며 남매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구름 사이로 내려다 보니 서울 간 아들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묘순이가 쌓는 성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아들을 선택한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될 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릴 궁리를 했다. 잠시후에 어머니는 베틀에서 내려와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마솥에 불을 때고 종콩밥을 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밥을 지어서 묘순이에게고 달려갔다.

“얘야, 배고프겠구나. 저런, 온몸이 온통 땀투성이네. 자,

땀 좀 씻고 조금 쉬었다 하려무나. 네가 좋아하는 종콩밥을 지어왔으니, 먹고 하렴.”

묘순이는 마음이 급했지만, 배도 고프고 좋아하는 종콩밥에 침이 솟았다. 아직 남동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묘순이는 이제 마지막 바위 하나만 올려놓으면 성쌓기가 완성되므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앞치마에 들고 가던 바윗돌을 내려 놓고 종콩밥을 먹기 시작했다.

묘순이가 정신없이 종콩밥을 먹는 사이에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오고 있었다. 묘순이는 밥을 먹다말고 서둘러 일어섰다.

묘순이는 급히 앞치마에 바위를 담아 들고 달려갔다. 그런데 몇 발짝 걸어가다가 그만 설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설사가 나오면서 온몸에 힘이 쭉뚝 빠졌다. 그 바람에 들고있던 바위를 놓치며, 그 밑에 깔리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묘순이는 경기에 지고 바위에 눌러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묘순이가 마지막으로 들고 가던 바위는 성문으로 추측된다. 사람들이 장난삼아 그 바위를 두드리며,
『묘순아, 묘순아……』하고 부르며
『종콩밥이 웬수다……』라고 대답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5) 금 마 총

홍성군 금마면 금마중학교 옆으로 철마산이 있다. 이 산 중턱 공원에 가보면 금마의 상이 있다. 이 금마의 상은 최영장군이 젊어서 무술 수련을 할 때 타고 다녔다는 말의 동상이다.

최영장군과 그의 사랑하는 말에 관한 얘기가 가슴 뭉클하게 전해지고 있다.

금마 평야를 막 벗어나고 홍성읍으로 들어서기 바로 전에 큰 은행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이곳이 은행정이다.

이 은행정 바로 옆으로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다. 이 무덤을 '금마총'이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말무덤'이라고도 한다.

이 말무덤은 최영장군과 연관이 있다.

최영장군은 어려서 금마에 있는 철마산에서 이곳 은행나무까지 말을 타고 무술연습을 했다. 최영장군이 타는 말은 천리마였고 영리했다.

어느날 최영장군은 자신의 말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철마산 위에서 금마 평야를 바라보며 말에 내기 시합을 청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야 할 몸이다. 오늘은 네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구나. 어떠냐?”

최영의 한마디에 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금마평야를 향해 활을 쏘면 즉시 달려 나가야 한다. 목적지에 네가 먼저 도착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화살이 먼저 도착하면 네 목을 칠 것이다. 자신 있느냐?”

말은 히힃 하는 목소리를 내며 앞발을 번쩍 쳐들었다. 자신 있다는 의사표시였다.

“좋다. 준비해라.”

최영은 말의 등에 앉아 금마평야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동시에 말도 최영을 태우고 금마평야 쪽을 향해 바람처럼 달려들었다.

눈 깜짝할 순간에 말은 최영을 태우고 은행정까지 달려왔다.

그러나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말에서 내린 최영은 얼굴을 찌푸렸다.

“벌써 화살이 지나갔음이 틀림없구나. 이 시합은 네가 졌다. 약속한대로 각오는 되어 있겠지.”

말은 각오를 하고 있다는 듯이 얼굴을 푹 숙였다.

최영은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햇빛에 비친 칼날이 번쩍했다. 그와 함께 말의 머리가 땅으로 푹 떨어지고 있었다. 말의 목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최영이 말의 목을 내려치는 순간에 ‘피웅’하면서 화살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빨사!”

최영은 칼을 땅에 떨어뜨리며 가슴을 쳤다. 자신의 성미급했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최영은 쓰러진 말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고 은행정 옆에 고이 묻어주었다.

“앞으로는 결코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최영은 이날의 결심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려의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



▲ 철마정



▶ 금마상



◀ 금마총

2. 동신신앙

1) 장승제 (충남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가야마을)

(1) 명칭 : 장승제

(2) 성격 : 장승

(3) 장승터의 위치

홍성에서 국도를 따라 예산 방면으로 6킬로미터쯤 가다 보면 대교(한다리)가 나온다. 대교 지산 한의원 앞에서 우회전하여 이백여미터쯤 직진하면 유명가든을 지나쳐서 조그만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곧바로 가야마을이 나온다.

마을 뒤쪽으로는 건재산이 있고, 좌우측으로는 조그만 야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마을 뒤쪽의 건재산은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홍성군 흥북면 대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 가운데로 들판이 펼쳐져 있고, 한쪽으로 시멘트길이 뚫려 있다. 마을 입구에서 시멘트 길을 따라 500미터쯤 올라가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곳은 마을의 중심부로 '장승배기'라고 부른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곳에 장승이 길 양쪽에서 마주보고 서있었다.

(4) 장승터의 형태

지금은 폭 3미터 정도의 시멘트 길이 뚫려있고 마을회관이 서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네거리 길이 있었다. 이곳에 장승이 서있었기 때문에 '장승배기'라고 부른다. 장승배기 양쪽에 소나무로 깎은 남자 장승과 여자 장승이 마주보고 서있었다. 제보자의 기억으로는 남자 장승은 '천하축귀대장군', 여자 장승은 '천하축귀여장군'이라는 글씨를 써놓았었다.

(5) 제의 목적

처음에는 짐승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냈다. 점차 세월이 흐르며 마을 전체의 안녕과 악귀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6) 제 일

매년 음력 2월 1일에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무당이 주관하여 지낸다.

(8) 금 기

장승제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정갈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제보자가 목격한 기억으로는 시루떡과 술이 진설한다. 떡은 시루 째 장승 앞에 갖다 놓았고, 술잔을 부어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의 절차는 마을 뒤쪽에 있는 건재산에서 시작한다. 아침 일찍 건재산 서낭당에서 무당이 떡시루를 갖다놓고 축원을 한다. 정오쯤에 마을 장승배기에 있는 장승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본격적인 장승제를 지낸다. 이곳에서도 역시 무당이 주관하여 축원을 하며 장승제를 지낸다. 축원을 끝낸 다음에는 시루떡을 몇 조각씩 떼어서 주변에 뿌린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제의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걸립하여 총당한다. 결산 절차는 제의를 끝내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것으로 기억된다.

(11)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가야 마을의 장승제는 해방 전에 없어졌다. 지금은 장승제에 대한 얘기가 구전으로 내려올 뿐이다.

(12) 유래 및 전설

가야 마을에서 처음 장승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유래는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소 전염병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전염병과 악귀를

예방하고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냈다.

한편 건재산 바로 아래로는 ‘사천나무’라고 불리는 느티나무가 들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한 그루씩 서있다. 사천나무라는 이름은 사천년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 나무는 옛날에 잎이 피는 것을 보고 일년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잎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피어오르면 풍년이 들고 한쪽에서부터 피어오르면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 사천나무는 가지 하나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가지를 꺾으면 앓은뱅이가 되거나 집안에 액운이 닥쳐온다는 속설 때문이다. 실제로 사천나무 가지가 논 한쪽으로 길게 뻗어서 농작물을 뒤덮고 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이 사천나무는 어른 팔로 여섯 아름이나 되는 거목이고 홍성군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다. 수령은 500년쯤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가야마을 곳곳에는 옛날부터 많은 전설을 간직한 바위가 있다. 옛날에는 열두 개의 바위가 있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바위는 고바위, 황새바위, 말바위, 늘바위, 각시바위, 장수바위, 중바위, 골바위 등이 있다. 몇몇 바위는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 사천나무
전경



사천나무 ▶
밑등부분



◀ 사천나무
밑등부분

2) 산제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상봉마을)

(1) 명칭 : 산제

(2) 성격 : 산신

(3) 산제당의 위치

금마면 부평리 상봉 마을(윗다개마을이라고도 함)은 금마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뒤쪽으로는 천마산 줄기인 안태산이 있다. 안태산 옆으로는 옛날에 홍성으로 통하던 지름길이 있다. 그래서 찾길이 뚫리기 전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고 길의 흔적만 남아 있다. 이 길을 따라서 마을 뒤쪽에 있는 안태산으로 200여미터 쯤 올라 가면 신평 이씨 종시조의 산소가 있다. 이 산소 아래쪽 정상부근 소나무 숲에 산제당이 있다.

(4) 산제당의 형태

산제당은 함석 지붕에 시멘트 벽돌담으로 되어있다. 서너평 넓이의 실내는 두 칸으로 되어있다. 한 칸은 산제를 지내는 방인데 정면에 야트막하게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다른 한 칸은 음식을 만드는 부엌인데 솥을 두 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출입구는 함석으로 문을 만들어 놓았다. 1970년대 초반에 개축한 건물인데 지금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5) 제의 목적

마을의 안녕과 공동 번영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6) 제 일

매년 음력 정초에 길일을 잡아서 지낸다. 초닷새를 넘기지 않는다.

(7) 제의 주관자

생기복덕을 보아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관 1명, 축관 1명을 선출해서 지낸다.

(8) 금 기

제관으로 선출되면 외부 출입을 금한다. 집 앞에는 황토 흙을 깔아놓고 금줄을 친다. 시체나 피를 보지 말아야 하고 3일 전부터는 목욕재계를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값을 깎지 않는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시루떡과 메, 삼색실과, 돼지고기 등을 준비한다. 밤은 통으로 놓았고 떡도 시루째 놓는다. 제의 과정은 제물을 진설한 다음에 재배를 하고 독축을 한다. 그런 다음에 각 가정의 세대주별로 소지를 올린다. 산제에는 제관과 축관만 참여한다.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내는 동안에 각 가정에서도 개인별로 제사를 지낸다. 개인은 시루떡을 3되 3홉 한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제의에 필요한 비용은 걸림으로 총당한다. 제비를 걸림할 때는 쌀로 걷는다. 결산은 다음날 당주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한다.

(11)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옛날에는 산제를 상당히 신성시 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산제 지내는 기간에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몸에서 피가 나는 바람에 집에도 못 들어왔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상봉 마을의 산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지금은 몇몇 뜻있는 노인들이 철마산 기슭에 있는 용마사에 의뢰해서 산제를 지낸다.

(12) 유래 및 전설

상봉마을의 산제는 이조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평이씨가 상봉마을에 정착한 것이 500여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산제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얘기가 하나 있다. 옛날에 전염병이 만연할 때에 상봉마을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샘제 만을 지냈던 아랫마을(아랫다개 마을)에는

전염병의 피해가 많았다. 상봉 마을이 전염병의 피해를 면한 것은 산제의 영험함 때문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후로 아랫다개 마을 사람들도 산제에 일부 참여하게 되었다.

〈산신제 축문〉

朔初 四日 壬午 幼學 李問永, 幼學 李秉憲

人家禍福 致敬至誠 萬突雪消
揔爲管領 日吉辰良 百福雲起
若不如是 尼邱降採 崑岑致佑
誰云其靈 諄聖其證 生才亦效
伏惟尊靈 涵恩浴澤 使此人生
降此榮福 如山如海 安過泰平

〈산신제 축문〉

維歲次辛丑正月己卯

敢昭告于

土地之神 維自名山 其主維何
起自崑崙 極聖且神
默助默佑 家長宅母 俱得安寧
無頤無咎 子孫奴僕 以介景福
淑秀以來 換古視令 具此菲簿
人暮不恃 我亦爲信 盡禮致勤

庶羞酒果 謹告 尚

饗

〈山祭列名記〉

丙辰正月初三日

祭冠

乾命幼學 權五龍癸未生家中

祝官

乾命幼學 李秉誠 丙戌生家中

食母

坤命 李氏 甲戌生家中

執事

乾命幼學趙振英乙亥生家中

童蒙幼學孫聲局壬辰生家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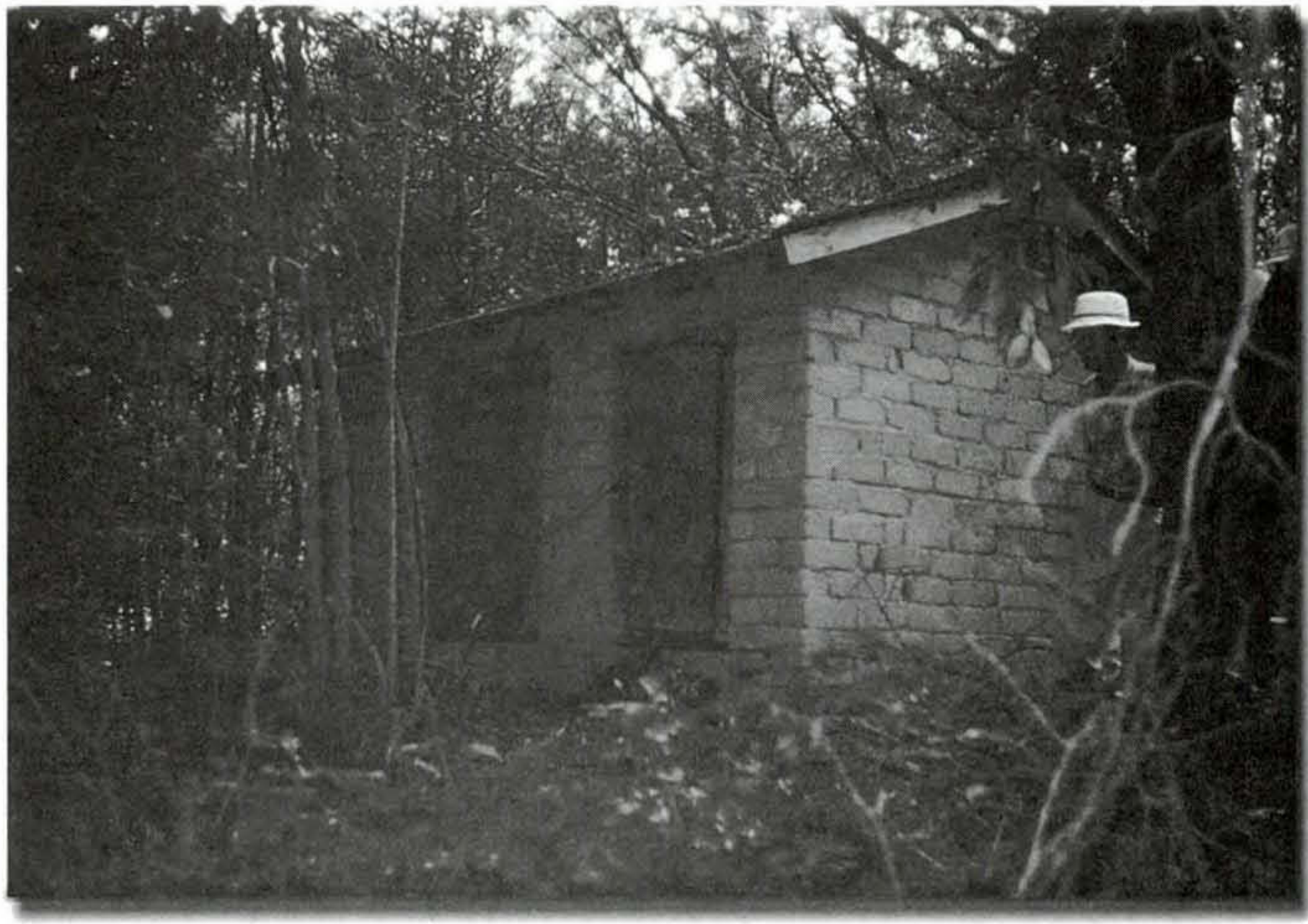
乾命幼學 李令敦 癸卯生 家中

이하 36명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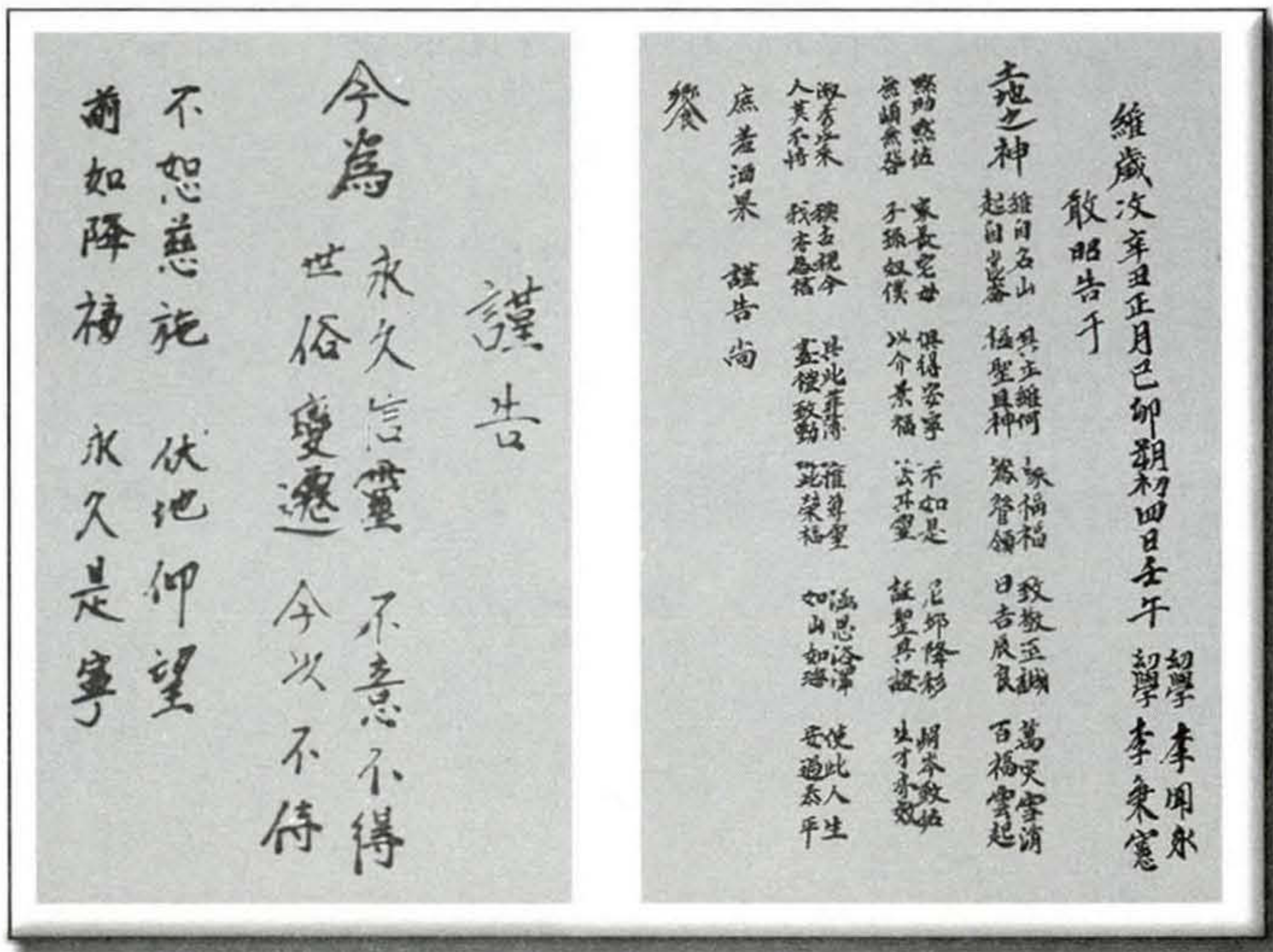
〈山祭收捧記〉

山祭羞用昨年度 백미 이홉의 利子六斗를 收捧한바 祭羞用으로
백미 一斗를 除하고 五斗는 斗當 二阡二百六拾원씩 賣買한 바
代金이 萬阡參百원하고 趙福英에게 未收金 二阡을 收入하고 昨
年 留置金 230원을 收金하여, 總收入金이 13,530원중 山祭羞興成
費 12,550원을 除하고 餘金 900원을 部落資金使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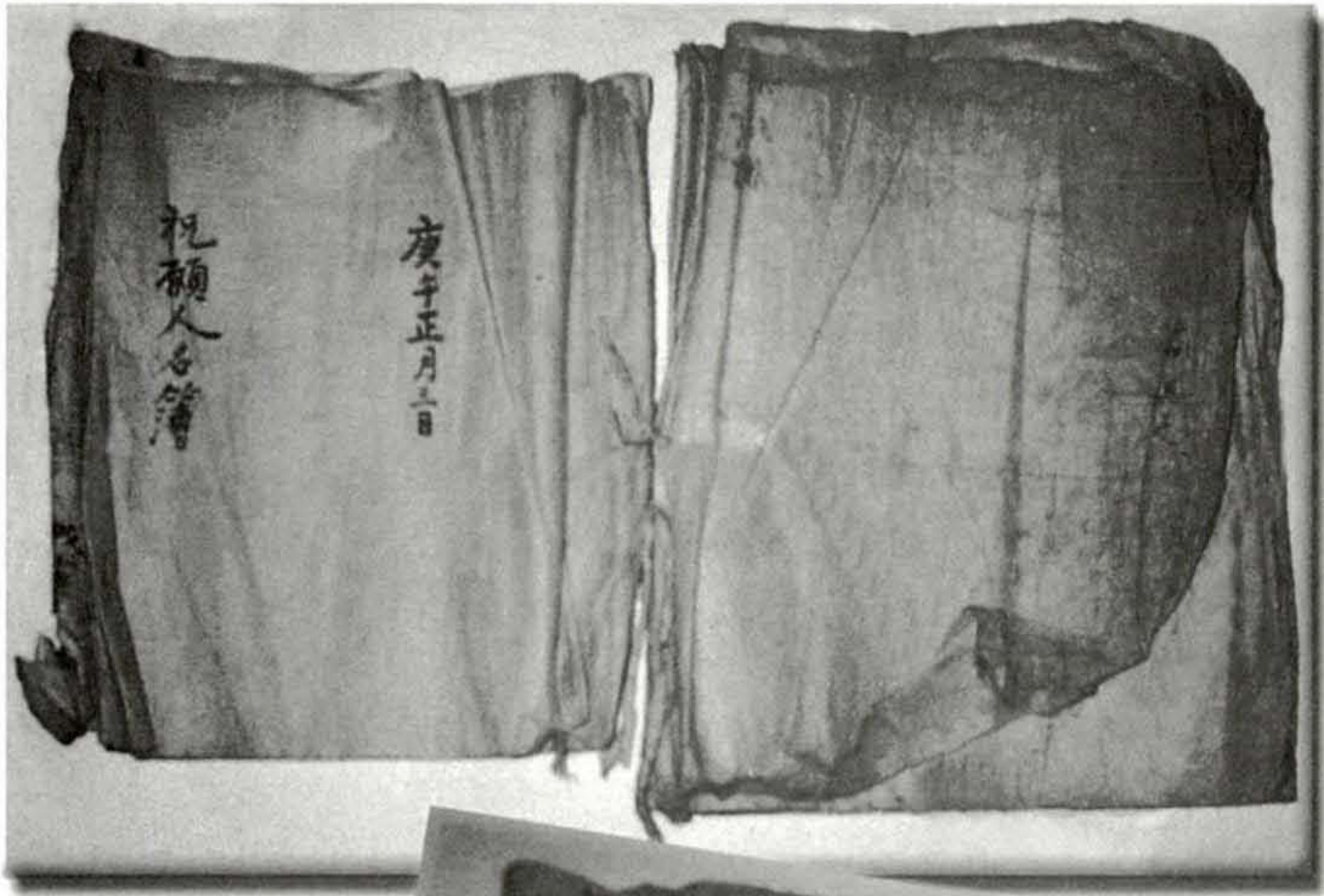
丙辰年正月四日 李聞永 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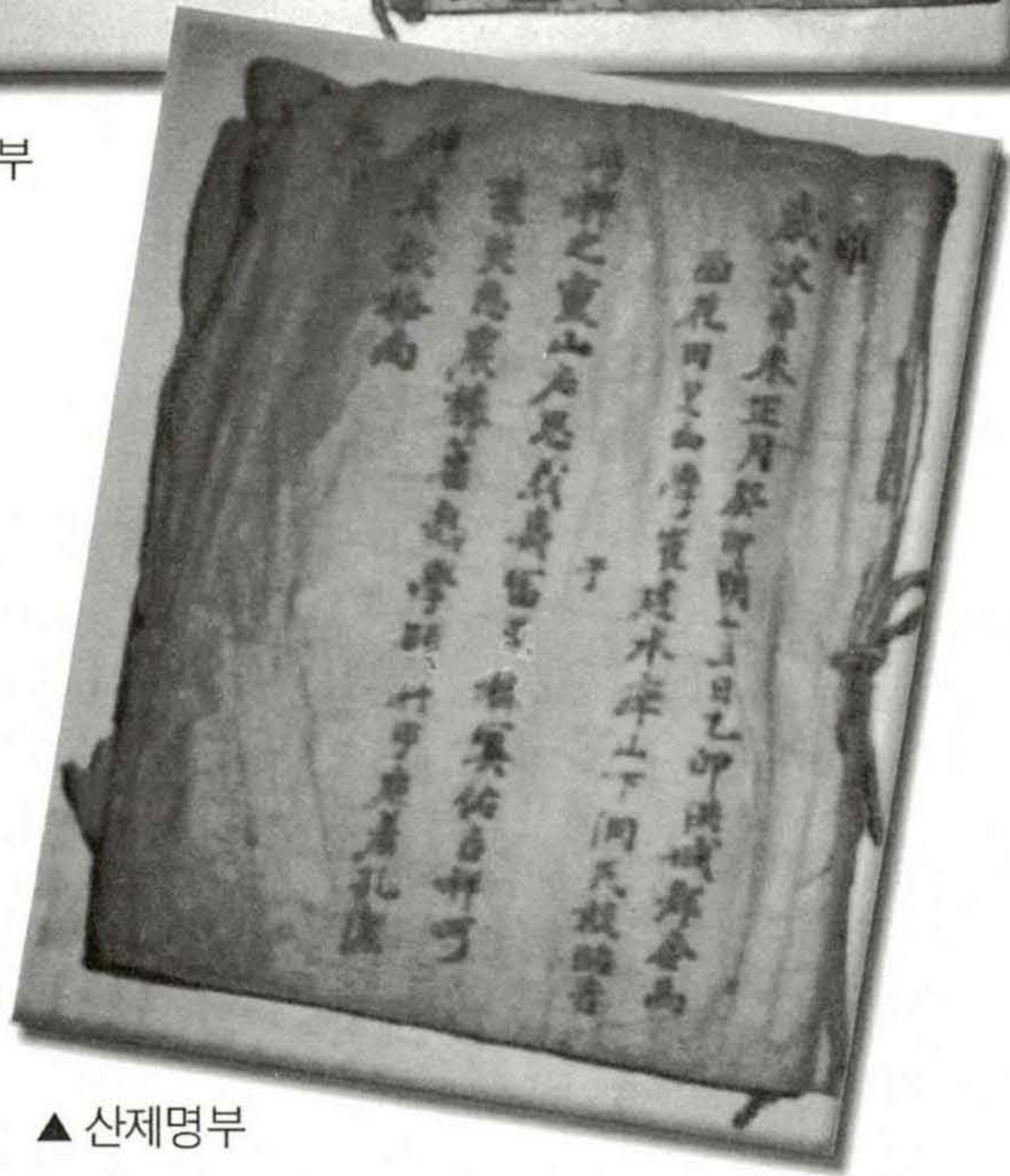
▲ 산제당



▲ 산제 축문



▲ 산제명부



▲ 산제명부

3) 산제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화전마을)

(1) 명칭 : 산제

(2) 성격 : 산신

(3) 산제당의 위치

홍성에서 천안 방면으로 장항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화양역이 있다. 이곳이 금마면 화양리이다. 화양리를 가로질러서 금마와 홍북면 노은리쪽으로 향하는 군도가 지나가고 있다. 화양역에서 군도 건너편으로 올라다 보이는 마을이 화전 마을이다. 이 화전 마을 뒤쪽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다. 이 야산을 산제당산이라고 부르는데, 정상 부근에 산제당 터가 있다.

(4) 산제당의 형태

옛날에는 기와지붕으로 된 세 칸짜리 산제당이 있었다. 방이 2칸, 부엌이 한 칸인 건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산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을 놓아서 태워버렸다.

(5) 제의 목적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6) 제 일

매년 정월 초에서 보름 안에 길일을 잡아서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제관과 축관을 선출해서 지낸다. 생기복덕을 보아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8) 금 기

제관으로 선출되면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외출을 금한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제물은 삼색실과, 북어, 떡, 술 등을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일반 제사 지내는 형식과 비슷하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제의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결립을 하지 않는다. 산제를 지내기 위한 용도로 마을에 전답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전답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비용을 총당한다. 결산은 마을회의에서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전답도 없어졌고, 산제도 지내지 않는 관계로 결산절차도 없어졌다.

(11)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옛날에는 상당히 신성하게 지냈으나,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점차 미신으로 치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산제당이 불에 타버린 후부터 산제를 지내지 않는다.

(12) 유래 및 전설

화전마을에는 옛날에 유명한 샘이 있다. 이 샘은 마을사람들이 유일하게 식수로 사용하던 샘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면서부터 물이 줄어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색깔이 바뀌었다. 어떤 때는 푸른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흙탕물로 변하기도 했다. 그 바람에 식수가 부족해서 마을사람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장소에 샘을 파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옆 동네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나가 보니 샘이 찰찰 넘쳐흐르는 것이었다. 소문을 듣고 달려 나온 마을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오쯤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후로 이 샘은 길흉을 미리 가리쳐주는 샘으로 유명해졌다. 지금은 샘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마을 공동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길흉을 예고한 우물

4) 미륵제 (금마면 송암리 구암 마을)

(1) 명칭 : 미륵제

(2) 성격 : 미륵신

(3) 당의 위치

금마면 송암리 구암마을 오른쪽의 산줄기가 끝나는 지점인, 송성에서 광시·대흥 가는 도로변에 작은 당집이 있다. 이 안에 키가 1미터쯤 되고, 둘레가 한아름쯤 되는 돌미륵이 있다.

(4) 당의 유래와 형태

산줄기 끝에 위치한 돌미륵의 삼면을 시멘트 벽돌로 쌓고, 그 위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었다. 백제시대에 홍주고을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를 길 양 편에 세웠는데, 남쪽 것은 없어지고 북쪽 것만 남아 있다. 이것이 돌미륵이라고 한다.

당집에 모신 미륵은 백제시대부터 있었다고도 하고, 조선 15대 임금인 광해군이 마을앞의 길로 미륵을 메고 가다가 놓고 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미륵을 모신 뒤에는 마을이 평화롭고, 전염병이 돌 때에도 이 마을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197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미신이라고 하여 미륵제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생겼다. 이후 80년대 초에 당집을 지어 미륵을 모시고 미륵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5) 제의 목적

마을의 평화와 풍년기원에 그 목적이 있다.

(6) 제 일

음력 정월 14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1주일 전에 나이가 좀 든 마을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서 1명을 뽑는다.

(8) 금 기

마을사람들은 미륵제 며칠 전에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물

을 다 품은 뒤에 금줄을 치고, 미륵당 청소를 한 뒤에 금줄을 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관은 1주일 전에 뽑는데, 전에는 제관으로 뽑힌 날부터 목욕하고 언행을 삼갔으나, 요즘은 미륵제 당일만 목욕하고 언행을 삼간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미륵제는 마을 어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우물에서 용왕제를 지낸 뒤에 미륵당에 가서 미륵제를 지낸다.

① 용왕제

날이 어두워지면 용왕제를 지내기 위해 우물가에 화톳불을 놓는다. 우물가 화톳불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제물을 담은 직사각형의 쟁반을 차려놓는다. 쟁반 위에는 촛불, 흰쌀밥이 든 양은 숟 1개, 북어포 1개를 담은 접시, 김 한첩을 펴놓은 접시 1개를 놓는다.

제관은 한복을 입고 와서 제물을 진설한 후에 그 앞에 서서 큰소리로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구암마을 용왕제를 올리오니, 00 000년을 맞이하여 용왕전에서는 이마을에 평안과 풍년을 주옵소서”하고 말한 뒤에 쟁반 위에 엎드려 재배한다.

② 미륵제

용왕제를 마친 제관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30미터쯤 떨어진 미륵당으로 가서 미륵 앞에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미륵의 양쪽에 촛불을 켜고, 오른쪽에 흰무리떡 시루를 놓고, 왼쪽에는 쌀 한 그릇과 쌀그릇, 북어포 한 마리를 접시에 담아놓는다. 제관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의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한 마을사람들은 둘레에 서 있다.

제관은 제물을 차려놓고 두 차례 재배하고 마을쪽과 도로 쪽을 향해 서서 소지를 올린다. 제일 먼저 대동소지를 올린 뒤에 각 가정별 소지를 올린다. 대동소지를 올릴 때에는 “00년을 맞이하여 정월 열 나흘날 미륵제를 올리오니, 미륵님은 굽어 살피주옵소서. 사업하는 분 사업 성취하고, 농사하는 분 농사 잘되기를 소원하여 소지 한 장을 띄웁니다.” 하는 내용의 축원을 한다. 가정별 소지를 올릴 때는 세대주

의 이름을 말하며, 그 집안의 평안과 행운을 기원한다.

제관의 소지가 끝나면,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미륵 앞에 돈을 놓고 두 번 절한 뒤에 소지를 하며 소원을 빈다. 미륵제가 끝난 뒤에는 마을회관으로 와서 떡과 국, 술 등을 나누어 먹으며 환담을 한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제의 비용은 미륵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사람 몇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걷는데, 돈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쌀로 조금씩 내는 사람도 있다. 제물은 간단히 차리기 때문에 얼마 들지 않는다. 남은 돈은 두었다가 마을 공동비용으로 사용한다.

(11) 마을사람들의 신앙태도 및 관련된 이야기

이 마을에서는 일제말기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 한국전쟁 때 군대에 간 사람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미륵제를 지내왔기 때문에 미륵님의 보호라고 생각한다.

한때 미륵제를 지내지 않을 때는 마을에서 약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정신이상인 사람도 생겼다. 그러자 나이든 노인들 위주로 미륵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제4장
봉안산 권역의
생·역·영



제4장. 봉수산 주변의 총·효·열

1. ‘의좋은 형제’ 비 - 예산군 대흥면 봉서리

아마도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할 때에는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연상될만큼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옛날이야기도 드물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널리 알려진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바로 봉수산 너머 대흥 땅에 살던 실존인물이다.

우리 홍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흥산의 예당저수지 쪽으로, 예산군 대흥면 봉서리에 대흥면사무소가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대흥면사무소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는 유서 깊은 백제의 임존성 아문이 서있고 임존성 아문 바로 앞에는 이곳의 역사를 상징하는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있다. 이 느티나무 바로 아래에 약 2미터 높이의 ‘예산 이성만 형제 효제비’가 자리잡고 있다.

이 효제비는 1백 73자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0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에 대흥호장 이성만과 동생 이 순 형제가 살았는데 형제는 부모가 살았을 때에는 술과 떡을 하여 부모는 물론 친척들과도 기쁘게 나누어 먹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형은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동생은 어머니의 묘를 지키며 애통과 정성을 다하였다. 또한 아침에는 동생이 형의 묘를 찾았고, 저녁에는 형이 동생의 집을 찾았으며, 한가지 음식이 생겨도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문을 세우고 표창하였다.

이 효제비는 1494 (연산군 3)년에 세워진 것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 20권 대흥현조에 이 효제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기록이 실려있다.

이 효제비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원래 예산군 광시면 월송

리 ‘개뱅이 다리’ 옆에 세워졌다고 한다. (지금은 예당 저수지에 수몰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서 신양면 쪽으로 가려면 광시면 월송리에 있는 개뱅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두 형제가 사는 마을을 향해 다리의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세월과 함께 유실되었던 것을 1972년 예당저수지 공사 중에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슨 비석인지 몰라 개뱅이 다리 옆에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을 예산의 한 노인이 비문을 해독한 결과, 이 비가 이 지방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제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비의 안내 표지판에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의좋은 형제’를 고증하는 비로 한 때 ‘우애비’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이 지방에는 옛날부터 의좋은 형제와 비슷한 얘기가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효제비가 발견되면서 전설의 두 주인공이 이성만 형제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옛날에 배웠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성만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도 닮았다는 사실에 신기하기만 하다. 대흥면사무소 직원 임하규씨의 구연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이곳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대흥 윷들거리(지금의 광시면 월송리)에 살았다.

어느해 가을에 대풍년이 들어 두 형제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형은 동생이 오리골로 새살림을 냈으니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생에게 더 많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은 동생대로 형님이 식구도 많고 부모님의 제사도 모시고 있으니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에게 더 많이 주려 하였다. 두 형제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형은 생각다 못해 밤중에 몰래 지게로 벼단을 져다가 동생의 집에 갖다 놓았다. 그날 밤에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형의 집에 벼단을 져다가 놓았다. 이튿날 아침에 형이 일어나 벼단을 세어보니 하나도 줄지 않았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두 형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날 밤 다시 벼단을 옮겼다. 이렇게 몇 날 동안을

밤마다 형은 동생의 집에, 동생은 형의 집에 벅단을 옮겨놓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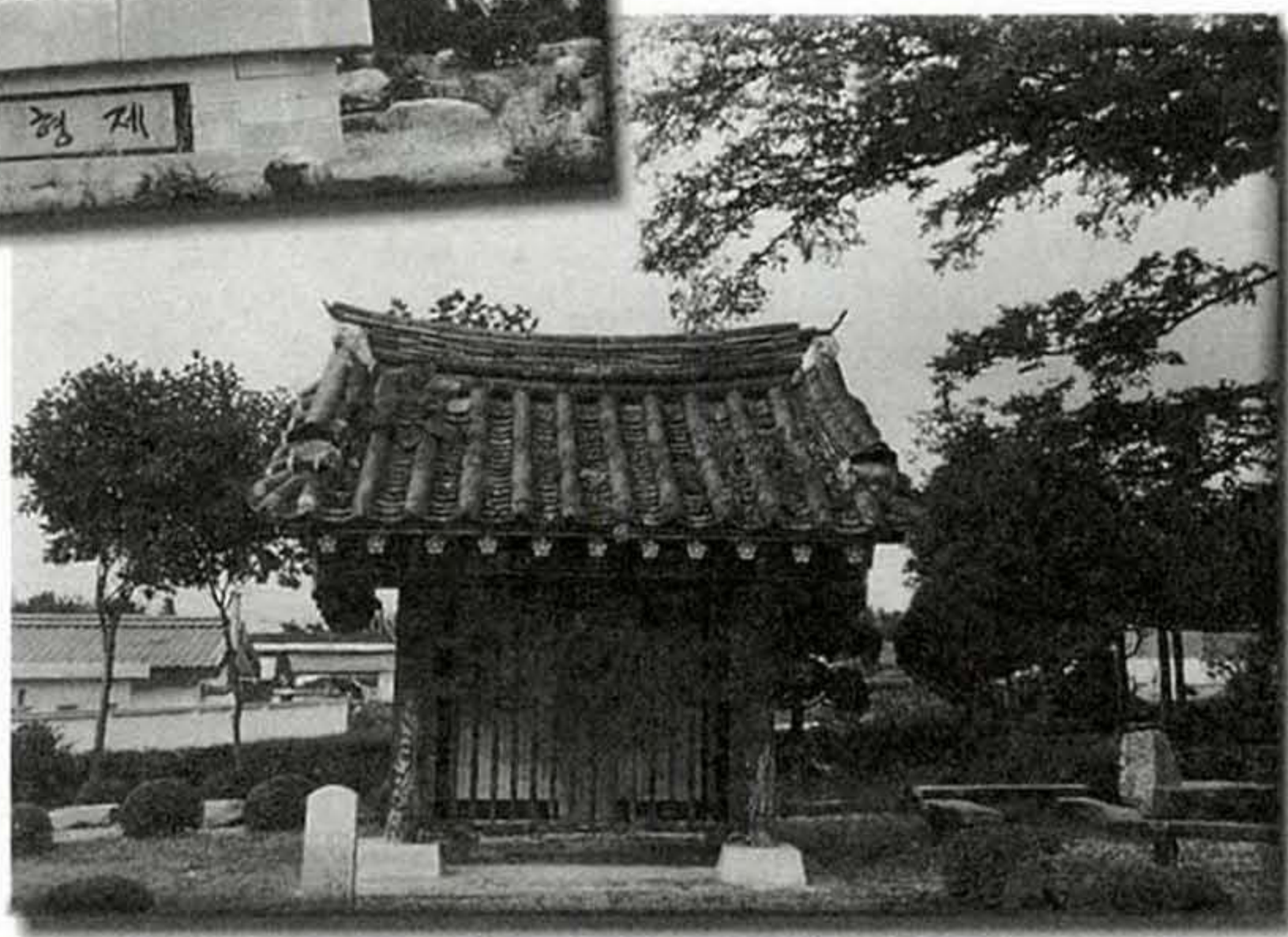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캄캄한 밤이었다. 전날과 같이 각각 지계에 벅단을 지고 가던 두 형제는 개뱅이 다리에서 서로 부딪쳐 넘어졌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두 형제는 벅단이 줄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이상의 이야기는 실존인물이었던 이성만·이순 형제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고 동생과 형으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효제비에 기록된 효행에 관한 이야기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두 형제의 우애에 관한 얘기만 전해지고 있다. 이에 관해 최운식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두터웠던 실존인물 이성만·이순 형제의 이야기가 이름이 누락된 채 전해오다가 효행에 관한 내용은 탈락하고 흥미로운 '형제 우애담'만이 구전되어 오늘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 의좋은 형제상

효제비 ▶



2. 한성동(韓性東) 효자비 -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한성동은 홍성군의 많은 효자 중에서도 자신의 허벅지 살을 배어내어 어머니를 봉양한 효자로 이름이 높다. 그 당시 한성동의 효행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이완수 할아버지(85·금마면 죽림리)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동의 원래 고향은 경기도 과주였다고 한다. 무슨 연유였는지는 몰라도 한성동은 형제가 홍성지방으로 옮겨와 살았다. 그의 형은 광천에서 고무신 가게를 했고 한성동은 은하면 대울리에 있는 대창강 습소(설립자:김구환)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대창강습소가 폐교 되면서 한성동은 구항면에 있는 흥명학교(설립자:전의진)로 자리를 옮겼다. 그후에는 금마의 이노윤씨가 배양학당을 설립하면서 한성동은 다시 배양학당으로 초빙되어 교사생활을 하였다.

한성동은 이 당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성동은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배양학당의 단칸 사택을 거처로 사용했다. 그리고 노모는 배양학당 설립자 이노윤의 주선으로 이 택 안방에서 따로 모셨다. 배양학당의 사택과 이노윤씨택은 한울타리나 마찬가지로여서 한성동가족은 자연스럽게 이노윤씨택에 수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노모를 갖은 정성으로 모셨다.

한성동이 배양학당으로 옮겨온 한참 후에는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환으로 몸져 눕게되었다. 한성동은 변변치 못한 경제사정과 당시의 빈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병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별 효험이 없었다. 누구에게선가 노모의 이름 모를 병치료에는 인육이 최고라는 말을 들었다. 한성동은 이 말을 한귀로 흘려 버리지 않았다.

어느날 어머니의 병치료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배양학당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성동의 얼굴 표정과 경름걸이 등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이상했다.

얼굴빛이 핏색하고 무언가 아픔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리고 전에 없이 자리에 드러눕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한성동과 한식구처럼 지내며 학생을 가르치던 배양학당 설립자인 이노윤씨는 고개를 가웃가웃 했다. 한성동의 이상한 몸동작을 예사로 보아넘기지 않았다. 한성동을 조용히 불러 이유를 캐물었다. 한성동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쉽게 말하려 하지않았다. 그러나 부모 못지않게 자신을 보살펴 주는 이노윤씨에게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가 없었다. 드디어 한성동은 이 사실을 이노윤씨에게 털어 놓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이노윤씨 역시 한성동의 깊은 효심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적셨다.

한성동의 이 효행은 금방 온고을에 소문으로 짝 퍼져 나갔다. 한성동효자의 효행을 널리 기리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효행비를 금마면 국도변에 세웠다. 지금은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효행비가 금마면 철마산 공원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 한성동 효자비

3. 성효각(誠孝閣) -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복한(卜閒) 효자문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99호로 지정된 성효각이 있다. 이 성효각의 주인공은 효자로 이름이 높았던 복한이다.

단종 임금 때는 조선의 대표적인 효자 10명을 추천하여 명나라에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한다. 10명의 효자마다 공적이 적힌 서류에 명나라 황제의 도장을 찍는데, 맨 밑에 있는 복한의 공적서에만 도장이 찍히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더욱이 도장이 찍힌 복한의 이름을 물속에 넣으니 그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는 얘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명나라 황제는 복한을 조선의 효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만방의 효자라고 칭찬하는 글을 조선에 보냈다. 그리하여 1458년에 조정에서는 복한의 고향인 여수동 입구에 정려를 세우고 그 효심을 오래오래 기리도록 했다.



▲ 성효각

4. 모쟁이샘 -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효자 복한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일화가 많다. 그중에 유명한 일화가 깃들여있는 샘이 하나 있다. 바로 모쟁이 샘이다.

복한이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며 산소의 풀을 뽑을 때는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와 잡초를 모두 뽑아줬다고 한다. 그리고 복한이 산소를 오르내릴 때는 쏟아지던 눈이나 비도 멈췄다고 한다. 또한 복한이 흠어머니의 병치료를 위해 먼 곳까지 달려가 물을 길어다 약을 달일 때는, 집근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와 그 수고를 덜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 샘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어머니의 병 치료에 썼다고 한다. 그 물고기의 이름이 모쟁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샘을 사람들은 효자 샘이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모쟁이 샘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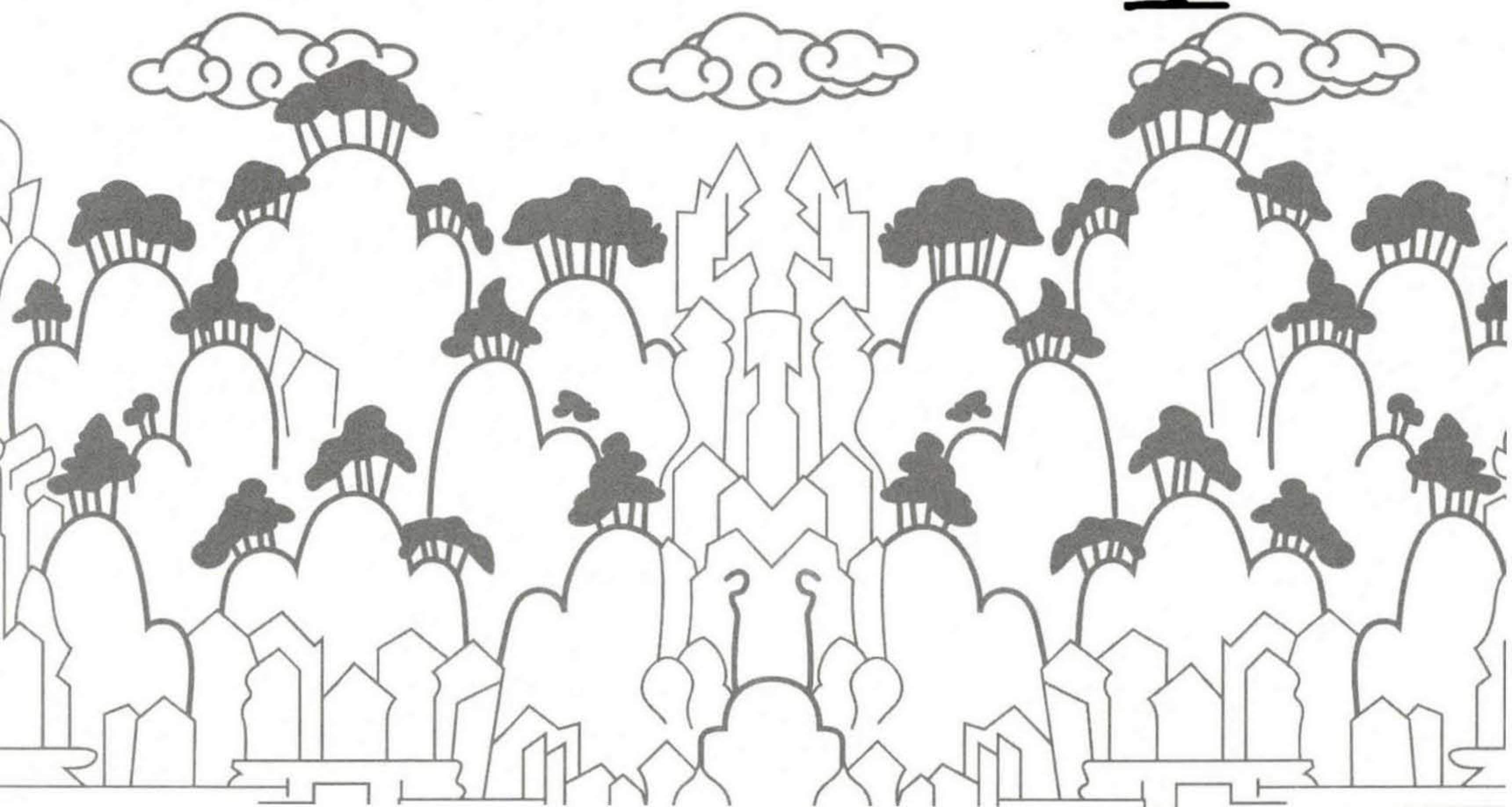
◀ 모쟁이샘

모쟁이샘 안내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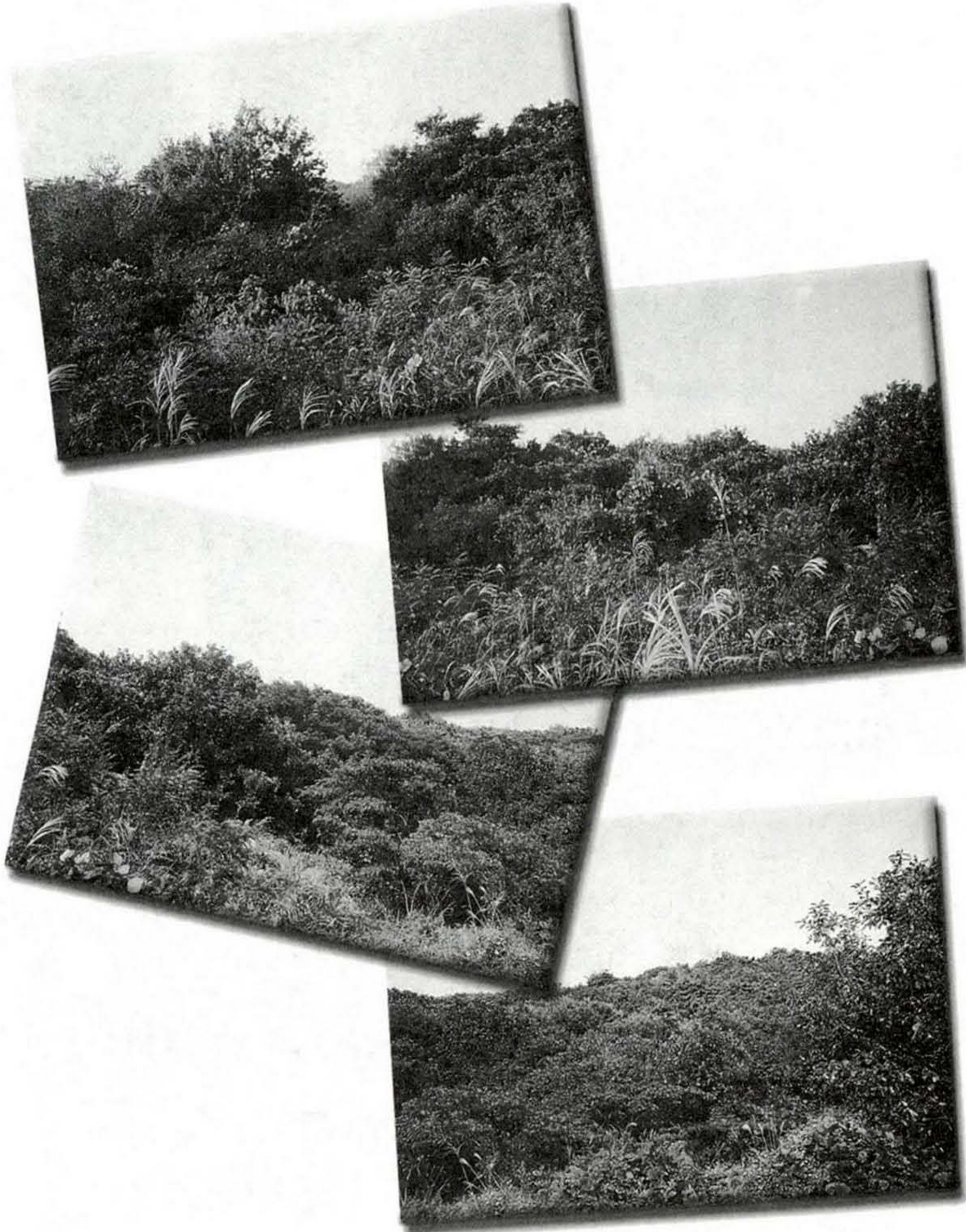


제5장
식객이 본 북방산악의 아름다움



제5장 사진으로 본 봉수산의 이모저모

1. 봉수산 정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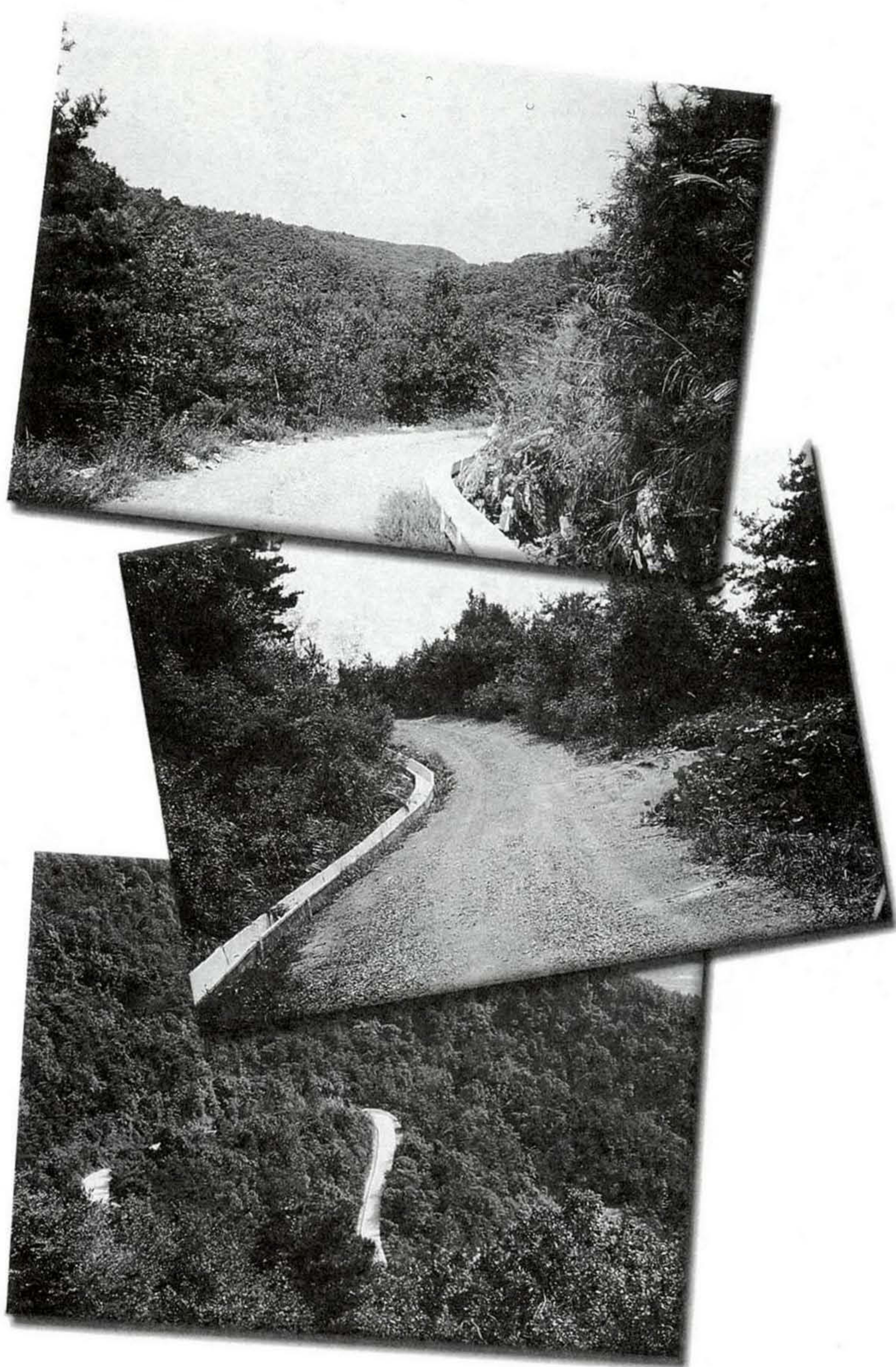


2. 봉수산에서 내려다본 주변의 모습





3. 봉수산으로 오르는 임도의 모습



참 고 문 헌

- 김선규 『충절의 고장 홍주』 홍성군, 1982
김선규 『홍성실록』 홍성군, 1983
박성흥외 『임존성 백제부흥군전사』 예산향토문화연구회, 1989
구재기·김정현 『홍성의 전설과 효열』 홍성문화원, 1995
최운식·김정현 『홍성의 마을 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9
충남발전연구원 『예산 임존성』 예산군, 2000
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대관』 홍성군, 2002

김정현 약력

- 충남홍성 출생, 홍성고등학교 졸업
-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석사
- 동화작가
- 충남문학 유공상, 아동문예작가상 수상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
- 청하문학상 수상
- 충남문학대상 수상
- 한국인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 현재 구항초등학교 교감

봉수산 주변의 민속

·인 쇄 : 2004. 12. .

·발 행 : 2004. 12. .

·발행인 : 이 하 영

·발행처 :  **홍성문화원**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 041)632-3613, 634-6959

Fax. 041)632-1199

·인쇄처 : 조양인쇄사

Tel. 041)632-2363

이 책은 도비·군비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봉수산 전경